

한가위 문화나들이

광주 비엔날레·미술관·박물관...

“명절에 지친 엄마를 부탁해”

차례 지내고 고향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넘는 시간, 명절 연휴 고생한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서보자. 광주비엔날레도 좋고 미술관, 박물관도 좋다. 이외에도 함께 즐길만한 문화 행사들이 적지 않다. 명절 증후군을 줄여주는 것, 남편들의 몫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설치된 토비야스 레베르거의 아트숍처럼 꾸민 작품, '신세졌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를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에티오피아 작가 슈바 차치의 '제 2의 물결'을 관람객이 살펴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비엔날레, 전시·공연·쇼핑까지 '웬스톱' = 제 9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을 차분히 둘러보면 가사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소 누그러뜨려주는 전시가 적지 않다.

미국 뉴욕에 사는 60~80세 이주민 출신 노인들의 단체 초상을 엮은 영상작품인 김수자의 '앨범: 허드슨 길드'의 경우 작가가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얼굴을 돌려 카메라를 응시한 뒤 사라지는 이주 노인들의 모습을 담았다. 대사가 전혀 없지만 31분짜리 영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타지에서 힘들게 겪어온 인물의 삶과 심리 상태가 느껴진다. '시'(她)가 들어간 사람들의 세상, '시월드'에서 혼자인듯한 머느리라면 감정이입이 될 법하다.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인 만큼 슬며시 부인 어깨를 두드려주는 센스도 필요하다.

웨스트 이스턴 다반 오케스트라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도 함께 볼만하다. '다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워갈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한 개념적 공간으로 음악인들을 불러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114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인데, 광주극장에서 상영한다.

에티오피아 작가 슈바 차치의 '제 2의 물결'이라는 작품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인도 여성운동의 기록을 담은 사진·비디오 설치 작품으로 가부장적 억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라면 충분한 공감을 느낄만하다.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소풍물을 찾는 여성들을 헤아린다면 토비야스 레베르거가 전세계 16개 대안 미술공간에서 생산하는 작품을 관매하

광주비엔날레, 전시보고 작품 쇼핑

국립광주박물관, 절강성 유물 전시

시립미술관, 세계적 화가 이우환전

는 아트숍으로 꾸민 작품을 지나치면 안된다. 투자 효과가 좋을듯한 작품을 골라 선물로 안겨주는 자세, 편안한 가정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라.

◇광주시립미술관 = '점'과 '선'으로 세계적 화가가 된 작가 이우환(76)씨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우환'전과 구원등 등 중국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15명의 작품 42점으로 꾸민 'Ctrl+N·비선형적 실험'전은 눈여겨볼만하다.

이우환전은 이씨의 70년~80년대의 '점'과 '선', '바람' 시리즈에 이어 90년대 초부터 시작한 '조용'을 타이틀로 삼은 연작 시리즈와 2000년대 '대화(Dialogue)'를 주제로 한 신작까지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국립광주박물관 = 절강성 박물관의 소장품 중

■ 모르면 손해

비엔날레 전시장, 한복입거나 부모님 모시면 무료

비엔날레 전시장 입장권은 1만4000원(성인), 하지만 29일부터 31일까지 고유 전통 의상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다.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관람객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스마트폰으로 광주비엔

대표유물 200점을 엄선, 선보이는 '절강성의 보물' 특별전은 중국 절강성 지역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로, 기원전 5000년 무렵 세계 최초로 논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유명한 하모도문화(河姆渡文化) 출토품 외에도 중국 불교 문화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송·원·명·청 시대 불상·불경도 전시된다.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뽕이·제기차기와 전통 문양 색칠 등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가족영화도 상영한다.

◇무등현대미술관 = 무등산 등반을 계획했다면 무등산 자락으로 발길을 옮기다가 무등현대미술관의 '다원주의'전을 챙겨봐야 한다. 홍경택·이이남·홍성민·유재명 등 '뜨는' 젊은 작가들을 내세워 전시를 꾸렸다.

지난 2007년 홍콩크리스티의 봄 경매에서 당시 한국작품으로는 최고가(7억7760만원)로 낙찰됐던 '연필' 작가 홍경택의 신작과 조르주 피에르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작품 등을 비디오 아트로 재해석한 이이남씨 작품도 관람함을 준다.

◇시립미술관 = 연휴 기간(29일~10월 1일) '가족과 함께 즐기는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연다. 아빠와 함께 만드는 '딱지 만들기 코너'를 운영하면서 굴렁쇠 굴리기나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30일~1일 찾는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람객, 한복 입은 관람객·조손가족·외국인에게는 팽이·제기·뽕 등 놀이기구를 무료로 나눠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날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관람객들에게는 어른은 3000원, 청소년은 1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오전 9시~11시 사이에 입장해도 할인되고 3일 태극기를 소지한 관람객도 할인 요금으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 공연·민속놀이 체험행사

전통문화관, 해외근로자 체육대회

죽산·승촌보, 사물놀이·연날리기

추석 연휴 기간, 박물관·미술관 뿐 아니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문화행사도 풍성하다.

광주문화재단은 29일 전통문화관에서 '달따라가세'라는 제목으로 판소리·남도민요·국악가요 등의 전통 국악 공연을 열고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축구대회를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태국 등 10개국 외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25개팀과 가족, 유학생 등 500여명이 참여한다. 태국 근로자 20개 팀이 참여하는 세팍타크로 대회도 눈길을 끈다.

전남에서는 연휴 기간 114개 지역에서 추석 맞이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영산강 죽산·승촌보에서는 연휴 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주관하는 강변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영산강 주변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정을 나누는 축제 한마당과 달맞이 소원빌기, 전통탈 만들기, 즉석 가족사진 찍기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예술인 날리기와 사물놀이 공연도 선보인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에서도 연휴 내내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한가위 전통놀이 한마당이 열리고 강진 마당에서는 활어맨손잡기체험, 노젓기대회, 투호던지기 등이 마련된 제 5회 마당미향축제가 펼쳐진다.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도 29일 오전 10시부터 한가위 민속체험행사로 송편 빚기와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열고 나주 동강에서는 봉추들노래 공연(29일)이 펼쳐진다. 영암 기찬랜드의 달맞이 한가위 공연(29일), 신안 압해송공항의 마당극잔치(29일), 도립국악단의 토요공연(29일)도 귀성객들의 여가를 들쭉거리게 할만하다.

30일에는 고흥 한적광장에서 열리는 모찌, 모심기, 김매기 등 들노래 공연, 담양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1일에는 구례 신촌마을에서 주민 화합을 위한 잔수농악 추석절 관동도 선보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전통 국악공연 모습.



구례 신촌마을에서 열리는 잔수농악 시연 장면.



국립광주박물관 뽕놀이 체험.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의 송편 빚기 체험 행사.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한가위

우리의 마음만큼 풍성한 보람들을 바라보며 온가족 함께 모여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더욱 밝은 모습으로 봄기를 기대합니다.



(주)한강건설

Hangang Construction Co., Ltd

대표이사 한 광 용
오영수, 허 근, 김재권, 김우철 임원일동

본 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81(신당동)
TEL. 041-583-8002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96-1(1층)
TEL. 062-382-1540 FAX. 062-382-1541

